

이근영의 해방 전 농민소설 연구

근대인의 불안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엄숙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교수, 현대소설 전공
ush8016@naver.com

I. 머리말

II. 근대적 시공간과 공동체의 변모

III. 근대인의 불안과 공동체성의 발현

IV. 개인과 전체 너머의 공유의 공동체

I. 머리말

근대 초기는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단자화된 삶으로의 본격적인 이행기였다. 근대에 이르러 개인들은 공동체의 매개 없이 단독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와 대면하게 된다. 이제 개인들은 공동체의 관계적 삶이 아닌 단자화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에 개인들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적자생존의 장에 무방비로 내던져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개인들은 공동의 운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농촌의 마을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이근영의 소설 또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대 공간에 피투된 존재들의 불안과 그 속에서 미래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구성원들의 기투의 양상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근대에 마을 공동체는 대개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속하게 되는 자연적이며 귀속적인 공동체였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개체로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비단 마을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대개의 존재론적 위상일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지만 독립된 개체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며 삶을 영위해간다.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개체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독자적 개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개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인간은 여러 가지 조직에 항구히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남과 나누고 서로 보완하며 자기와 남의 생활을 공동으로 형성하며 살아간다.¹⁾ 즉 인간은 혼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없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또한 공동체 생활은 사람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도움과 보호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의 질과 인간의 행복도 공동체에 달려

1) 정용교 외, 「인간존재의 이중주: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7집 1호(2009), 196-200쪽.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처럼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이듯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공간에 속하고 동시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전의 마을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은 대개 태어나고 자란 공간이 거의 동일해서 그 공간이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마을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근간이 되는 근원공간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자신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근원공간의 상실은 인간을 끊임없이 부유하게 만든다.³⁾ 공동체의 이런 속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 공동체 중의 하나가 마을 공동체이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삶의 공간이었다. 이해와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운영 논리나 규약, 법속, 규범, 그리고 문제해결의 지혜를 마련하며 지속되어왔다. 그런 전통마을 문화는 자율, 평등, 공생의 공동체 생활문화였다. 이러한 마을의 조직적 전통은 변모를 거듭하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마을조직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매우 민주적이고 실질적이었다.⁴⁾ 이러한 마을 공동체와 같은 근원공간으로서의 공동체는 특히 한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기반이 되면서 존재에게 안정감을 주는 장소로 기능하는데, 이런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근대 초기의 농촌의 현실을 담아낸 이근영의 농민소설에서 자주 목격된다.

근대 이행기,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진행하며 농민운동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 농민운동을 시작하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농민에 대한 계몽기획을 전제로 하는 본격적이고 경쟁적인 농민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농민운동이 이후 1930년대 농민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식민지 현실의 모순이 집약된 농촌에 대한 고조된 관심의 반영으로, 농민에 대한 계몽기획과 결부되고 계몽적 이성의 귀향을 기본 모티프로 하는 농민소설이 탄생하게 되며, 그 서사적 담론들의 바깥에는 그것들과

2) 위의 논문, 200-202쪽.

3)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3호(2013), 454쪽.

4) 이해준,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 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 제32집(2005), 213-214쪽.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농민운동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⁵⁾ 당시 이근영은 카프 계열 작가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보여주면서 창작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의 작가의식은 『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에도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소설을 쓰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에 튼튼히 서서 사회 현실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하며 언어의 구사에 능수가 돼야 하며 주제의 사상이 정당해야 하며 소재 설정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쯤은 신인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⁶⁾

이렇듯 이근영은 사회주의적 계몽기획의 일환으로 작품 창작을 했지만 해방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의식적인 지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사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서서히 각성에 이르는 농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근영 농민소설에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생존조건을 구조적 규정력으로 작용했던 당대의 모순구조에 대해 감정적 차원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하거나 가족적 온정주의에 호소하고 복해도 탄광노무자에 지원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준 점은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⁷⁾ 하지만 이근영 농민소설은 농민들이 계몽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서사의 추동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참한 생존조건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농민들의 순후한 심성과 공동체적 정서에 대한 작가적 믿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농민소설들과 차별화된다.⁸⁾ 이로 미루어볼 때, 그의 농민소설은 계급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적인 묘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에 기반한 농민들의 순박하고 견고한 인간됨을 부정적인 현실과 대결하는 근대적 시선으로 포착해내

5) 류양선, 「1930년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계몽적 인간형」, 『국제고려학회논문지』 제1호 (1999), 279-280쪽.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운동, 사회주의 측의 농민조합운동, 수원고농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 등이 당시 농민소설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농민운동이다.

6) 한설야 외, 『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인동, 1990), 200쪽.

7) 공종구, 「이근영 농민소설의 이야기 구조 분석: 「당산제」, 『한국언어문학』 제37권 (1996), 470쪽.

8) 위의 논문, 470쪽. 1930년대의 근대기획은 대략적으로 순응적 개량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의 세 경우로 나뉘고 농민소설도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이광수의 〈흙〉, 이기영의 〈고향〉, 심훈의 〈상록수〉를 들 수 있다. 이근영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창작활동을 했으면서도 해방 이전의 작품에는 농민의 각성이나 의식적 지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며 공동체 윤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근영의 농민소설은 당시 계몽적인 인간형을 창출해냈던 다른 농민소설들과는 차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

이근영이 활동했던 일제강점기는 농촌공동체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기였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소작농이 증가하고 농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민중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시기였다. 이근영의 해방 이전 소설들에서도 오랫동안 유대로 묶여 있던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가난과 궁핍으로 존재의 기반이었던 마을을 떠나 국외로까지 이주를 감행하며 유랑생활을 하는 이들, 부모의 빚 때문에 돈에 팔려가야만 하는 여식, 일본의 유혹에 넘어가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북해도행을 감행하고 만 마을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 등이 씩씩하게 그려져 있다. 이때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남은 이들의 모습이다. 공생의 공동체였던 마을을 등지고 떠나야만 하는 이들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남은 이들의 처지 또한 별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아질 기미 없는 삶 속에서 떠난 자들의 뒤편까지 떠안고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렇듯 비극적인 상황들과는 대조적으로 이근영 소설 곳곳에는 상실감에 처한 민중들의 공동체적 행위들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마을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당산제를 올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옷을 일 하나 없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이때만큼은 흥겨운 풍물로 짧은 위안을 얻는 모습, 돈을 벌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풍물을 치며 무사귀환을 바라는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 이근영 소설의 마을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런 공동체적 행위들은 단순하게 마을 구성원들의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오랜 공동체적 삶에서부터 체현되어온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닌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속되어온 공동체가 지닌 공동체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근영 소설에서 이전의 안정적인 공동체가 붕괴되어가는 가운데 마을 공동체가 행하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

9) 이근영 저, 유임하 역, 『이근영 중·단편 선집』(현대문학, 2009), 418쪽.

적 행위들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근영 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방 이전 이근영의 농민소설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유임하의 「고쳐히는 양심과 농촌 공동체의 윤리: 이근영 소설의 현재성」과 공종구의 「이근영 농민소설의 이야기 구조 분석: 「농우」, 「고향사람들」을 들 수 있다. 논의에서 유임하는 이근영의 농민소설이 당대의 꺾절(乏絶)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취급하면서도 농촌공동체 성원들의 자존감과 순박한 인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⁰⁾ 한편 공종구는 해방 이전 이근영의 농민소설이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농민들의 건강한 공동체적 정서나 온후한 심성에 대한 작가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궁핍한 현실에서 이런 농민들의 윤리적 미덕이나 자질이야말로 시대의 어두움을 가르거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폭발적인 힘으로 전화될 잠재적 가능태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¹⁾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이근영 소설이 농촌공동체의 붕괴 양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농촌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성과 구성원들의 윤리적 미덕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간과된 것은 앞서 말했던 소설 속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공동체적 행위들의 의미이다. 단자화된 삶으로 급격하게 이행해가는 근대 공간 속에서 마을 공동체도 존립 위기에 처하고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된다. 이근영 소설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를 기반으로 소설 속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행위들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봄으로써 근대에 마을 공동체가 불안한 근대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대의 공동체 사유에서 마을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¹²⁾

10) 유임하, 「고쳐히는 양심과 농촌 공동체의 윤리: 이근영 소설의 현재성」, 『돈암어문학』 제22집(2009), 152쪽.

11) 공종구, 「이근영 농민소설의 이야기 구조 분석: 「농우」, 「고향사람들」」, 『국어국문학』 제119호(1997), 392-393쪽.

12) 대상 텍스트는 이근영이 월북 이전에 발표한 〈농우〉(『신동아』, 1936. 6.), 〈당산제〉(『비관』, 1938. 1.), 〈고향사람들〉(『문장』, 1941. 2.), 〈최고집선생〉(『인문평론』, 1940. 4.)이다. 이하 본문에서 인용은 『이근영 중·단편 선집』(이근영 저, 유임하 역, 현대문학, 2009)을 기준으로 한다.

II. 근대적 시공간과 공동체의 변모

근대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특성을 보이지만 근대 이전의 공동체는 대개 귀속적·자연적 공동체였다. 이런 대표적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이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없는 한 수백, 수천 년간 큰 변화 없이 존속해왔다. 오랫동안 마을은 구성원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적극 실천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존재해왔다. 이전의 전통 마을은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위치 등을 살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존을 꾀했다. 마을은 자연과 공존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마을의 존속을 모색하며 공동체를 지속시켜왔다.¹³⁾ 또한 전통적 마을은 이전의 위계화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발성을 지니며 마을이라는 작은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마을의 규범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공존해왔다.¹⁴⁾ 더불어 전근대의 마을은 미분화된 사회구조와 봉건제 그리고 신분제의 존속, 생산 수단의 제한 등의 이유로 자족성을 구현하며 존속해왔다. 게다가 마을은 대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는 고립적 상황에 있으면서 마을의 존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리더십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 힘을 결집할 뿐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도 스스로 해결해왔다. 또한 협업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심과 배려로 고효율의 복지를 구현했을 뿐 아니라 축제나 잔치 등을 통해 고유의 문화를 창출하기도 했다.¹⁵⁾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족적이고 자립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온 마을은 근대에 이르러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해체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필요로 했던 것은 자국의 정치군사적·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식민지 초과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식민지였다. 조선의 전통적 마을은 그러한 식민지 지배와 시장체제 구축에 장애가

13) 김기홍, 「모듬살이의 진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5권 1호(2015), 142-143쪽.

14) 위의 논문, 138-139쪽. 전근대의 마을에서 자발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된 이유는 봉건제적 신분제도에 의해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과 이로 인한 갈등, 불평등, 모순 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5) 위의 논문, 139-140쪽.

될 뿐이었다. 마을은 자본의 축적이 지상 목표인 시장체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윤리적 공생과 호혜적 협동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마을은 이러한 식민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해체되어갔다.¹⁶⁾ 또한 당시는 농촌진흥운동¹⁷⁾을 통해 촌락이 침략전쟁에 총동원되는 통제 경제적 시장체제로 재조직되면서 전통적인 마을은 더 이상 현실적인 제도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동제나 거의 기능이 상실된 촌계 등 일부 제도가 마을의 잔재로 남았으며, 오랜 세월 마을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체화된 공동체적 윤리나 문화는 농촌진흥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의식 속에 살아남았다.¹⁸⁾ 이렇듯 전통마을이 식민지 근대의 자장 속에서 본연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변모해 가는 정황은 이근영 소설에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그 많던 소나무가 없어지고 바위가 커가는 것은 동리가 망할 징조라는 말이 한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 증거로 아침저녁이면 바가지를 든 걸인들이 열을 지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늘어서게 되고, 만주로나 함경도로 품팔이 가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당산제〉: 66

“여봐들 곰개재에도 빨간 말뚝을 박었는데 거 뭐라는가.”
 “자동차 길이 난대여. 그래 우리 집 주인 아들은 곰개다가 땅을 산다구 오늘 갔지.”
 “아 그리어? 그것 참 미상불 편리하게 되었네그려.”
 “뫼이 어찌구 어찌어? 너는 행길 나면 인력거품을 팔아서 좋겠지만 우린 큰일이다 큰일이여. 인제 화물자동차가 부리나케 들락거려 일 년 두구 우리 등으로 저내던 숯짐을 몇 차로 죽쳐 널 테니 등짐 품팔이도 못허어 먹게 됐어.”
 “흥, 자넨 신작로 나면 자네 인력거가 뽐낼 줄 아는가 지랄두 틀렸어. 누가 자동차 타고 멍기지 다 찌그러진 자네 인력거를 탈 성부른가.”

〈고향사람들〉: 158

16) 이윤갑,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마을문화의 해체」, 『한국학논집』 제32집(2005), 250-251쪽.

17) 일제는 1933년부터 대공황의 피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농촌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조선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만주 침략을 위한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을 그 기초단위인 자연부락 차원에서부터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시행했다. 이런 농촌진흥운동이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서 자율과 호혜를 특징으로 하였던 조선 전통의 마을은 식민지 권력에 의해 전면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위의 논문, 260-264쪽.

18) 위의 논문, 268쪽.

〈당산제〉와 〈고향사람들〉에서 ‘동리’가 변해가는 모습은 불안하다. 마을의 주변 경관은 황폐해지고 궁핍에 내몰린 농민들의 유리결식은 점점 늘어나며, 급기야 사람들은 국외로까지 품팔이를 떠난다. 또한 오랫동안 모습을 지켜왔던 마을의 주변 경관도 ‘자동차 길’이 나게 되는 등 외부의 변화에 급속하게 변할 거리는 게 예고된다. 그러면서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양상도 급변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내외부의 변화로 마을 공동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이탈하는 정황은 〈최고집 선생〉에서도 목격된다.

“아 박 첩지 아난가.”

“최고집 선생님…….”

박 첩지는 당황하며 말을 잊지 못한다. 뒤에는 박 첩지 안해가 보짐을 머리에 이었고 열두 살 된 아들은 어린 동생을 업고 있다.

“이 밤중 어딜 가는 켜가. 응, 내 다 알고 있어.”

“그저 최고집 선생님께서 절 용서하셔야지 누가 사정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용서란 말이야 당한 말인가. 여보게, 고향을 버리고 어딜 간단 말인가. 고향 떠나면 잘 살 것 같은가.” […]

“가면 어디로 가는가. 정처나 마련해놓고 가나?”

이 말을 내고 나니 비로소 가슴속에 뭉친 것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황해도 은률 땅입니다 거기에 제 내종형이 살지요. 아무튼지 여기 있는 것보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고집선생〉: 143-144

야반도주를 하는 박 첩지와 최고집 선생이 맞닥뜨린 장면이다. 희망이 없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박 첩지를 최고집 선생은 붙잡지 못한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농촌의 빈궁화가 지속되면서 1930년대 이후 대부분의 농가가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부채는 갚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급기야 빈손으로 농촌을 떠나거나 야반도주하는 농민이 줄을 잇게 되었다.¹⁹⁾ 〈농우〉와 〈당산제〉에는 이렇듯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육칠 년 전만 하더라도 양식 걱정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지만 차차로 생활이 쪼들어지자 소를 팔고 밭을 얻어 쓰고서는 그다음 해에 가서 봄에 논갈이와 가을에 밭갈이와

19) 위의 논문, 251쪽.

또 구루마질로 모두 갠다. 결국 돈을 얻어 쓴 다음 해는 일 년 내 공일만 죽게 하여주게 된다. 그러나 한 해씩 걸러야만 빛이라도 얻어 쓰게 되는데 작년에는 가물에 어거지 농사를 짓는다고 빛만 대추나무 연 걸러듯이 여기저기 걸어놓게 되어 금년에는 소득 핑계로 얻어 쓸 수도 없게 되었다.

〈농우〉: 40-41

삼동부터 보리 낱 때까지 이들의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고마운 것은 ‘고지’라는 것이다. 논갈이 시작하면서 가을에 바싹할 때까지 청할 때마다 일을 해주기로 하고 그 품삯으로 돈이나 나락을 미리 받아먹는 것이 고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품삯을 제대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칠십 전이라면 이십 전은 때버리고 받아먹으면서도 한창 바쁠 때 가서는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라도 일을 해주어야 한다.

〈당산제〉: 75-76

“여보 송진사, 어떻게 시죄를 허야 좋을지 모르겠소. 사실인즉 송 진사도 짐작하겠지만 빛은 잔뜩 진 데다 가을 농사는 모두 타 죽어버리고, 다섯 마지기라도 캄냥캄냥 먹게 될 것이 덜컥 화곡집행을 당하게 되구……. 그리고 원채 채금한 것 전부 비하면 십 분의 몇백에 안 되닝게. 인제 우리 살림살이다가 집행을 붙이고 이후로도 모두 꺼나갈 때까지는 몇 번이구 집행을 한다는구려. 그뿐이겠소? 우리 식구는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이니 할 수 없이 순님이년을 팔게 되었소.”

〈당산제〉: 116

가을걷이와 상관없이 마을의 구성원들은 늘 빛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화곡집행’을 당하면서 딸까지 팔아넘겨야 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시 농촌의 이러한 경제적 파탄은 직접적으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끼친 영향 때문이다. 마을은 토지조사사업으로 마을 공유전답이나 임야를 일거에 탈취당하고 마을은 자족적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었던 물질적 토대를 잃게 되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배타적으로 강화해 지주의 이익과 권력만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²⁰⁾ 이렇듯 마을은 식민지 지주제가 정착되면서 단순 재생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소작료 수탈이 강화되어 이웃 간에 물질적인 상부상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의 호혜관계가 깨지고 경쟁과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식민지 지주제가 초래한 이 변화는 마을을 구성하는 내적 동력을 파괴하고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²¹⁾ 일제의 식민지 농촌정책이 기존의 호혜적 마을 공동체의

20) 위의 논문, 251쪽.

근간을 흔들어놓았던 것이다. 이근영 소설에서는 이렇듯 식민지 근대 속에서 농촌의 경제가 파탄 나고 구성원들의 궁핍이 극에 달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 공동체가 서서히 와해되어가는 모습이 비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의 공동체성마저 훼손되어가는 와중에도 이근영 소설에는 마을 구성원들의 강한 유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 〈농우〉에서 확인된다. 〈농우〉에서 서 생원은 윤 진사의 비위를 건드려 소를 빼앗기고 노소 영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시대나 있었던 불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윤 진사는 서울이나 일본에 잘 보여 재산을 축적하고 진사라는 벼슬을 사들여 양반이 된 인물로, 기존 마을의 양반층 노인들이 주축이 된 노소 영감 모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애쓰는 인물이다. 윤 진사가 서 생원 부자에게서 봉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노소 영감들은 자기 발에 불덩이나 떨어진 듯 노발대발하면서 노소 마당에서 서 생원의 불기를 쳐야 한다고 합의한다.

늙은이들은 다 각기 원님이나 되는 듯이 높은 마루에 앉아서 파뿌리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엄을 보이고 있다. 한기운데는 윤 진사가 버티고 앉아 있다.

“명석 우에 앉게.”

하고 전 부안 군수가 턱으로 가리킨다.

서 생원은 모든 것을 각오한 이상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명석 위에 꿰어앉았다. [...] 이때이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나자마자 와이끈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짝이 떨어져 나자빠진다. 그러자 맨 앞에 덕쇠 그다음으로 열댓 명의 청년 장년 노년의 험수룩한 농꾼들이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몰려온다. [...] 이것을 본 서생원은 전기를 통한 것같이 벌떡 일어나더니 덕쇠를 껴안고 그 늙은 가슴에다 얼굴을 파묻는다.

〈농우〉: 63

시절에 안 맞게 불기를 쳐서 양반의 권위를 얻고자 하는 영감들과 이에 마지못해 응해주려는 서 생원 사이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서 생원의 부당한 처지가 동네에 퍼지면서 마을의 빈농층이나 머슴들은 서 생원이 불기를 맞는 일은 남 일이 아니라며 불기를 맞기 직전에 급습하여 그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농우〉에서는 마을 청년들의 각성과정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급진적인 연대의 모습이

21) 위의 논문, 252쪽.

로만 부각되어 그들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서 생원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인식은 그동안 마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어온 공동체성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을 구성원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마을 구성원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은 운명공동체로서의 마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마을의 소작농들이 마을 지주 영감들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에서 보듯이 여기에서의 마을은 어느 정도 이전의 위계화된 마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근대 마을의 모습이다. 이전부터 마을은 분명 호혜적인 공생의 협력관계로 지속되어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마을 내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마을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상생해왔던 것이다. 이런 마을의 면모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상황을 달리하여 지속된다. 경제력과 그에 수반된 권력을 지닌 집단의 권위와 이들에게서 소작을 하는 반농층 사이의 권력관계는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분명 달라진 것은 마을 구성원들의 권력관계가 신분제가 아닌 경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당산제〉와 〈농우〉에서 보듯이 이제는 경제력과 더불어 이전의 허울 뿐인 양반족보의 권위까지 빌린 사람들이 마을의 새로운 권력이 된 것이다. 이는 이제 마을에서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권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의 마을은 이전의 위계화된 마을과는 분명 다르다.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의 근간에 신분제가 있었다면 이젠 자본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 이 점은 〈당산제〉에서 덕망은 없지만 돈이 많은 윤 참판이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당산제를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인데, 마을 구성원들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식하고 덕망 없는 윤 참판이 거액의 당산제 비용을 내놓으면서 마을 구성원들은 마지못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윤 참판은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제 전통적으로 위계화되고 폐쇄적이었던 마을은 이동이 잦아지고 구성원의 면모가 달라지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자장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농우〉에서 구성원들 간에 벌어진 갈등의 표출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허는 말이지만 사실 그 진사 영감이 성질은 참 괴팍스럽지. 그전의 상사람이 돈 덕으로 양반 노릇을 하게 되니 그저 양반 대우만 잘 해주면 좋아하는구려. 선의 옛날 원님 정치가 없어진 후로는 누구 한 사람 볼기 친 일이 없는데 자기가 이것을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호기심이란 말이여. 서 생원에게 분풀이한다는 것보다는 다만 이기심이지. 그러니 가서 순순하게 맞아만 봐. 도리어 이후로는 서 생원을 더 생각할 터니깐.”

〈농우〉: 60

이 대화는 시절이 지난지도 모르고 양반 노릇을 해보려고 하는 마을 영감을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이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는데도 여전히 마을의 몇몇 사람은 ‘송 참봉’, ‘윤 진사’, ‘김 진사’ 등 관직명에 따라 호칭되고 있다. 또한 돈 있는 마을 영감들은 시절에 안 맞게 볼기도 쳐보며 권위를 보여주려는 과욕을 부리면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근대로 변모하는 가운데도 사람들의 생활습속은 여전히 전근대에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급변하는 시대와는 별개로 그들의 일상에서는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되면서 다양한 균열의 양상이 발생한다. 〈농우〉에서 확인되듯이,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권위를 부여받으며 공동체의 중심에 서려는 이들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힘든 구성원들과의 마찰은 급변하는 시기에 공동체가 겪었을 진통과 대응 양상의 면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따라서 작중 근대 마을 공동체의 혼성적 공간이 의미하는 바를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근대에 농촌의 마을 공동체는 도시가 근대적으로 급속도로 변모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전의 생활기반 속에서 전근대적 사유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근대 농촌의 생활공동체인 마을은 전근대 공간과 근대의 문물이 조우하며 만난 혼성공간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당시 이런 사정은 비단 농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민중들의 오래된 생활 습속, 특히 봉건적 신분제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사회적 관습체계들로 형성된 민중들의 감성구조는 근대 유입 이후 오랫동안 민중들의 생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럴 때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자치규약에 의존하며 자립적으로 지속되어온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당시 마을 공동체는 전근대와 근대의 착종과 충돌 속에서 마을 공동체만의 독특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의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시기에 비해 혼성적 공간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면서 발생한 균열은 공동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 표출은 이전과 이후에 단절의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농우>에서 반감을 표출해본 마을 청년들과 그 반감을 체감한 마을 영감들이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 다를 것으로 예견된다. 이근영 소설은 이렇듯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된 마을 공동체가 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며 새로운 삶의 양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보여준다.

Ⅲ. 근대인의 불안과 공동체성의 발현

불안은 조만간 자신에게 닥칠 어떤 위험에 대한 예감에서 비롯되는 반응이다. 불안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외재적인 것으로,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위협들이 닥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다.²²⁾ 그렇다고 할 때, 근대 초기 급변하는 근대의 환경 속에 피투된 전근대인들의 낯섦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불안은 막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본주의적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과의 분리에서 비롯된 혼돈과 그 속에서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근대인이 맞닥뜨린 숙명이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민중들은 기존 가치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근대적 사유와 식민지 억압이라는 이중의 불안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근영 소설에서도 근대의 불안 속에서 개체성보다는 공동체성이 더 요구되는 시대적 정황과 그에 대응하

22) 일찍부터 이뤄진 인간의 불안의식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한 키르케고르(S. A. Kierkegaard)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불안과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의 불안을 분석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S. Freud)는 불안을 양분하여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보존의 본능적 표현인 정상적인 불안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인 비정상적인 불안을 구분했다. 한편 틸리히(P. Tillich)는 불안이란 한 존재가 자기가 비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불안극복의 핵심 원리로 존재에 대한 용기를 제시했다. 이처럼 불안을 인간의 본성이나 내면의식과 관련해 논의해오던 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불안이 사회와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찰스 테일러(C. Taylor)의 경우처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고 있다. 전명수, 「현대적 불안의식과 종교의 역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종교연구』 41집(2005), 43-44쪽.

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투 양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²³⁾

이근영 소설 속 농촌의 실상은 황폐함 그 자체이다. 살던 마을에서 야반도주를 감행하며 만주로 이주하려는 가족, 남아 있어도 고지의 그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저당 잡힌 삶들, 급기야 딸자식까지도 유흥가에 팔아야만 하는 부모들이 만들어내는 참담한 실상이 소설의 주된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소설에서는 마을의 생기가 발산되는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연출된다. 소설 속 당산제를 치르는 마을 구성원들의 면면과 그에 따르는 풍물의 여흥 등은 마을 공동체의 여전한 공생의 기운과 역동적인 생명력을 암시한다. 더불어 그런 공동체적 행위 속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에 시선이 쏠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와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면적·인식적 요인과 같은 집단적인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성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내면화된 공통된 인식과 의식적인 차원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구성목적이나 역사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공동체성의 주요 구성요인으로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 개인과 공동체 간 상호 영향관계, 개인과 공동체 간의 욕구 충족감에 대한 믿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친밀감과 유대가 있다.²⁴⁾ 이근영 소설 속 마을 공동체의 모습에는 이런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삶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근영의 〈농우〉, 〈당산제〉, 〈고향사람들〉을 대상으로 황폐한 마을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당시의 구성원들에게 마을 공동체가 지닌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3) 근대는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대두된 시기로, 이러한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근대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대의 의미는 구체적인 근대의 특징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현상들을 통칭하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인도 같은 맥락에서 합리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이라기보다는 근대의 시공간에 피투된 존재들이다. 이럴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인의 불안도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 이근영 소설의 준비 없이 근대적 시공간에 피투된 농민들은 초기 근대인이 겪었을 숙명적인 불안 속에 던져진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4) 전지훈 외,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2016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2016), 133-134쪽.

1. 공동의 신념과 공생의 삶

농촌 마을이 배경인 이근영의 소설에서 민간신앙은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으로 형상화된다. 근대계몽기에 조선의 전통 민간신앙은 한순간에 미신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간신앙은 민중들 사이에서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생활습속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에 민간신앙은 개인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공동체 전체에게는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축제로서의 기능²⁵⁾까지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간신앙은 근대 이전부터 기존 유교문화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중들의 욕구 또는 필요에 부응하며 다른 종교들과 함께 공존해온 상황이었다. 이근영의 소설에서도 마을 구성원들은 마찬가지로 이유로 당산제를 치르고, 성황당의 신성함에 의탁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근영의 <당산제> 서두에는 마을의 상징인 보금산의 내력이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보금산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숭상해온 영산이다. 사람들은 보금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을의 길흉까지도 판단해왔다. 그러던 마을이 근대에 들어 급격히 변하면서 마을이 망할 징조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다.

이 산 위에 구름이 가는 것으로 또는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 해의 풍흉을 판단하고, 이 산의 바위가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되어 있다. 옛날 이 산에 바위가 드러나 보이지 않고 아름드리 되는 낙락장송이 뻗뻗하게 들어섰을 때는, 이 동리에 걸인 한 사람 없고 양식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적으로 액운이 적었으나, 그 많던 소나무가 없어지고 바위가 커가는 것은 동리가 망할 징조라는 말이 한 상식처럼 되어 있다. [...] 보금산에서 느끼는 그들의 공포가 크면 클수록 산에 정성을 들이고 숭상하는 맘은 더하여진다. 그래 한때 중단되었던 당산제(堂山祭)를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규모도 전보다 훨씬 굉장히 차리게 되었다.

<당산제>: 65-66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동리’의 망할 징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마을에서 ‘당산제’가 부활하게 되는 정황이

25)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9집(2005), 163쪽.

다. 한때 당산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마을이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던 마을에서 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게 당산제를 치르게 된 것은 그만큼 마을 구성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두의 보급산 내력과 당산제 부활이 암시하듯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마을의 풍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마을은 걸인들이 늘어가고, 만주나 함경도로 품팔이를 가거나 이사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빗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부활된 당산제는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삼선봉 가운데 봉우리에서 뺨어 내려온 줄기와 무릎 근방 되는 곳에 넓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이 고목이란 수백 년 되면서도 벼락 한 번도 맞은 일이 없고 아직도 위로는 해마다 푸른 잎이 탐스럽게 나온다. 나무 밑동아리는 세 사람이 팔을 짝 벌려야 간신히 손가락을 닿달 만하다. 그리고 나무 몸뚱이는 뒤로 굽었고 속이 썩어 패져서 사람 하나는 넉넉히 들어앉을 만하다. 여기에 동리의 길흉을 맡아 가지고 있는 신령이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리 큰 비를 만나더라도 이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어린아이들까지 알고 있으며, 나무 앞에는 석단(石壇)이 쌓여 있고 그 밑에는 잔디밭이 제법 넓게 깔려 있다. 그리고 왼편은 낭떠러지로 되었는데 조그마한 폭포가 떨어져 있어 간단한 산책지로도 적당하다.

〈당산제〉: 67

마을 공동체가 신앙공동체인 이유는 마을 수호신인 동신 또는 서낭신을 함께 믿기 때문이다. 서낭신은 당나무나 동신당 또는 누석단에 깃들여 있으면서 마을을 지켜주고 경제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구실을 한다. 그러면서 서낭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마을을 처음 개척한 입향시조신으로서 지역신이자 공간신의 의미를 지니고, 둘째, 마을과 마을 사람, 마을의 살림살이를 두루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공동체신이자 생업신이기도 하다.²⁶⁾ 이럴 때 마을의 당나무에 서낭신이 깃들여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당산제〉에서도 당나무가 신령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마을의 당나무는 환웅이 깃들여 있던 신단수 구실을 하며, 서낭당은 주민들의 신앙생활공간인 동네 사원이나 교회 구실을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사월 초파일 또는 5월 단오와

26) 임재해, 「공동체 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 『실천민속학 연구』 제11호 (2008), 131-132쪽.

같은 명절에 정기적으로 서낭당에 제의를 올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인 마을 굿 또는 동제를 통해서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보장받는다고 믿는다.²⁷⁾ <당산제>에서 이런 당산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활된 것은 생존의 위기에 총착한 마을 구성원들의 불안이 그만큼 증폭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불안한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당산제라는 공동의 신념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당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목격된다.

열나흘날을 앞둔 칠 일 전부터 이 고목 주위와 석단에는 정한 황토흙을 뿌리었고 입구에는 금줄을 매어 사람의 발을 막았다. 다만 박 참봉 집 식구들만이 비린 음식도 가리고 훤한 것도 보지 않은 몸으로 부리나케 다니며 제물상을 차린다.

그전에는 도야지 한 마리 쇠머리 한 개에다가 하얀 시루떡, 술, 명태, 밤, 대추, 배들로 차렸던 것이 이 해에는 윤 참판이 약속대로 백 원을 시원히 내주어서 도야지 두 마리를 더 잡고 쇠머리 외에 쇠다리 2개를 더했다. 그리고 윤 참판이 막걸리 한 섬을 따로 선사했다는 것이 동리 사람들의 귀를 더욱 슬긱하게 하였다.

제물상이 모두 되고 끝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 쌍촛대에 촛불을 켜놓자 당산은 달빛과 함께 제법 환하니 비추인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촛불만이 깜박깜박 타고 있는 것이 마치 음침하고 깊숙이 파진 느티나무 통 안에는 정말 신령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상을 차린 사람이 모두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목욕재계를 한 박 참봉이 제단 앞 돛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는 한참 동안 신령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것처럼 고개를 단정히 수그리고 있다가, 향불을 피고 술을 따라 올린 다음,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우리 동리의 친지 인간사를 맡아보시는 당산님네 올해에는 처치의 편편옥도에 오곡이 풍성풍성하고 병액의 범하는 것을 막어주시기 원하옵니다.”

그는 간곡한 정성으로 이렇게 혼자 외고 나서는 공손히 사배를 한다. 동신제는 이런 절차로 간단히 끝났다.

<당산제>: 67-68

이는 마을에서 당산제가 치러지는 과정이다. 당산제가 치러지기 전부터 당나무 주위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신성한 장소가 된다. 그곳에는 제주(祭主)의 식구들만 정갈한 몸으로 드나들며 당산제를 준비한다. 그렇게 정성 들여 제를 준비하고 당산제가 치러지는 날 제주는 ‘간곡한 정성’으로 동네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런 후에는 풍물의 여흥이 이어지면서 당산제가 끝이 난다. 이렇게 당산제를 치르고

27) 위의 논문, 132쪽.

나서 “동리 사람들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농사가 믿음직”하다는 안심이다. 이런 당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어른인 ‘윤 참판’이 당산제 비용을 대며 같이 참여하는 정황이 그려지는데, 이렇듯 마을의 당산제는 이전부터 반촌의 양반들도 함께하는 마을의 공동 제의였다. 양반들이 동신신앙을 인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신앙을 유교적 이념이나 양반의 권위로서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마을사회를 유지하는 데 동신신앙이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양반들도 서낭신의 영험과 신이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굿이나 동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동제를 스스로 맡아서 지내기도 했던 것이다.²⁸⁾ 이처럼 〈당산제〉에서도 볼 수 있듯,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은 신분차별을 넘어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동신신앙의 공유에서 비롯되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 결속에 대한 절대적 구실을 한다.²⁹⁾ 즉, 하나가 된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정서 속에서 행해진 공동체적 제의가 구성원들의 정신적 위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마을의 민속적 의례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과거부터 전승된 토착 신앙적 요소가 강하였다.³⁰⁾ 이런 민속적 의례공간들의 본질이 마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로 암묵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암묵적 질서는 마을 주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³¹⁾ 이렇듯 마을 공동체에서 행해진 당산제는 공동체적 신념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28) 위의 논문, 135쪽.

29) 위의 논문, 136쪽.

30) 이처럼 마을의 공동 제의가 일어난 장소는 주로 마을 입구나 마을 외곽의 주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 입구의 제당에는 주로 마을 숲이나 장승, 솟대, 당산목 등의 요소가 많았고 마을 외곽은 산신당이나 성황당 등 제당 형태로 조성된 사례가 많았다. 마을 입구는 사람 이외에 병마와 같은 좋지 못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제당이 많고, 마을의 영역을 한정하고 마을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당목이나 비보를 설치하였다(김수진 외,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권 4호, 2010, 25쪽). 소설에서 당산제는 마을 입구에서 치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입구의 당산목은 마을의 영역을 한정해주고 마을을 안전하게 수호해주는 의미가 있는 신성한 것으로, 마을 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 위안의 장소로 기능한다.

31) 위의 논문, 27쪽.

그런 공동체적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의 상징성과 그 분위기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도 한다. <당산제>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공동체적 정서와 삶의 지향성이다.

이런 이유로 <당산제>에서 치러지는 마을 공동체의 당산제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것을 행하는 마을 구성원들의 모습에 더 주목하게 된다. 지난 역사 속에서 민간신앙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질병, 전쟁 등 사회 악순환의 상황 속에서 더욱 성행했고, 그들이 찾는 절대적 존재, 곧 신이나 영(靈)에 의지하여 재액을 면하고 소망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³²⁾ 또한 민간신앙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미신으로 폄하되며 위기를 맞았지만 근대에도 여전히 민중들 삶의 저변에서 신앙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폭력적인 근대의 현실에서 개인에게 위안을 주며 신앙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³³⁾ 이러한 민간신앙은 주로 생활 공동체를 바탕으로 삶에 필요한 하나의 원천으로서 창출되었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인 생사화복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민간신앙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불행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구하여 건강하고 풍요한 새로운 현실의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³⁴⁾ 근대의 불안한 삶 속에서 구성원들은 잊고 있었던 공동체적 제의를 다시 부활시킨다. 민중들 삶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민간신앙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때 근대인이 직면한 불안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이 주목된다. 종교는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던져준다. 인간이 자신들의 미약한 힘, 자연의 위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자각했을 때 종교를 찾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³⁵⁾ 이러한 종교의 역할과 의미로

32)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화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248쪽.

33) 엄숙희, 「윤홍길의 장마에 나타난 민간신앙의 의미」, 『현대문화이론연구』 제57권 (2014), 188쪽.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민간신앙』(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3쪽.

35) 전명수, 앞의 논문, 49쪽. 이 외에도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제공해준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내세우는 이념 속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덕목이 들어 있다. 따라서 한 종교의 생명력은 종교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얼마나 잘 제시할 수 있는가, 즉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윤리와 도덕을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불 때, <당산제>에서 존립의 위기에 처한 불안한 마을 구성원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행한 당산제는 공동체적 신념으로 불안을 달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산제>에서 당산제에도 불구하고 액운이 뒤따른 마을 구성원들의 참담한 실상이 당산제의 의미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시 정성을 모아 당산제를 치를 것을 다짐하는 부분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산제라는 제의를 통해서 한 해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하는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산제를 치렀음에도 더 불안해진 삶이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공동체적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의 제의에 의지하게 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소설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의 공동체적 행위가 누군가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동체적 공간에서 구성원들에게 체현되어 있던 공동체성이 위기의 순간에 발현된 것이다. 이처럼 이근영은 소설에서 농촌의 공동체 공간을 배경으로 극한에 처해 있는 근대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절실한 공동체적 신념을 얘기하며 상실되어가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2. 공동체적 신명과 유대의 증대

<당산제>에서 당산제를 치른 후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진다. 당산제 음식은 먹기 좋게 준비되어 술과 함께 동리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한쪽에서는 ‘풍장(農樂)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며 흥을 돋운다.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농악 소리와 군중의 떠드는 소리가 차차로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고깔을 쓴 채 우쭐거리는 그들의 행렬이 보인다. 농악 앞에서는 두 사람이 다투어가며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는 뺨 돌기도 하고 꺽충꺽충 뛰기도 한다. 이런 때마다 돌담이 무너지듯 하는 웃음소리가 쏟아진다. […]

농악꾼들이 가까워지매, 순님의 모녀와 다른 여자 몇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언덕 위로 피한다. 상쇠잡이가 된 덕봉이는 꿩과리를 번쩍 들어서 느린 조(調)로 고쳐 다룬다. 그랬다가 당산 앞에 이르자, 쪽 늘어서서 인사하는 뜻으로 허리를 구부러 가지고, 한바탕 치고서는 그 앞 넓은 마당을 돌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이날 밤의 여흥은 시작되는 것이다. 꿩과리가 돌, 징이 하나, 장고가 둘, 북이 둘, 소고가 셋-이렇게 열 사람이 둥그렇게 서서 돌고, 그 가운데에 들어선 사람들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어느덧 구경꾼이 산을 이루었다. […]

이윽고 그가 팽과리를 치고 나서자 농악쟁이는 물론, 춤패들까지 뒤를 이어 일어난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돈 뒤라 심지어 우두머니 서 있는 구경꾼들도 흥이 절로 나는 모양이다. 군중들의 뒤송송하게 떠드는 소리도 농악 소리 속에 파묻혀버리고 땅은 속속들이 울리는 것 같다.

〈당산제〉: 69-72

〈당산제〉에서 풍물이 행해지는 장소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놀이판이 된다. 당산제가 치러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당산제를 올리고 이를 지켜보는 무리들, 다른 한 부류는 풍물을 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들 모두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를 올리는 제주도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정하고, 풍물을 주도하는 상쇠잡이도 마을 주민들 중에서 맡는다. 이렇듯 마을에서는 모든 의례를 마을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공유한다. 마을은 의례의 의식은 물론 마을의 잔치까지 대등한 수준에서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풍물굿의 경우에도 마을 구성원 중 한 명이 풍물잡이를 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별 노동과 전문적인 기술을 공유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의 일을 해나간다.³⁶⁾ 이렇듯 기존 마을 공동체는 토지는 사유화하고 있지만 농업노동이든 마을의 일이든 공동으로 공유하는 조직이었다. 여기서 마을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조직화하고 집약시켜서 노동능률을 올리는 것이 두레이다. 두레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노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공동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레에서는 일의 시작과 끝, 휴식을 공동으로 한다. 풍물을 앞세워 길놀이를 하거나 농요를 부르며 신명풀이를 즐기는 놀이도 한다. 이처럼 두레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놀며 함께 굿을 한다. 이럴 때 놀이판을 벌이고 굿을 하려면 풍물이 필수적이다. 두레 풍물은 일과 더불어 놀이와 굿을 가능하게 만든다. 두레풍물은 일꾼들이 일터에서 치는 놀이풍물이며, 제의로서 두레굿이자

36) 임계해, 앞의 논문, 125쪽. 마을의 제의에서도 제의의 의무를 지닌 제관은 있되, 특권을 지닌 성직자가 별도로 없으며, 제관의 선출 또한 민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에 독점되는 법도 없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신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신앙 주권이 보장되어 있다(앞의 논문, 137쪽). 또한 마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례에 외부의 장사꾼이나 상업자본가들이 기여를 여지는 거의 없다. 자연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례공간과 모든 의례용 기구나 물품이 마을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앞의 논문, 142쪽).

풍물굿이다.³⁷⁾ 〈당산제〉에서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를 치르고 벌이는 풍물은 두레풍물이다. 이때 풍물은 행해지는 시공간에서 공동체적 신명을 발휘하게 하며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지만 마을에서 풍물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만들어진 풍물놀이패와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작용하는 공동체적 정서들은 놀이를 떠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마을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풍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확인된다. 마을에서는 풍물에 쓰이는 악기처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놀이기구는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유한다. 풍물은 제법 값이 나가는 기물이다. 그렇지만 풍물과 풍물굿 관련 비품들을 마을 경비로 마련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자라도 풍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즐기는 것이 풍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을이라도 풍물이 없는 마을이 없을 만큼 마을 공동체에서 풍물은 필수적 공동악기이자 마을 유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마을 재산이었다.³⁸⁾ 다시 말해 풍물이 마을의 필수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풍물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당산제〉에서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를 올리는 것은 극한에 처한 자신들의 삶을 구원받고 싶은 신념에서 행해진 절규와 같은 것이다. 근대, 더구나 식민지 근대가 야기한 농촌공동체의 붕괴에 직면하여 마을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당산제를 다시 치르면서 불안을 달래고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풍물 한바탕 속에서 공동의 신명을 만끽한다. 비록 고지에 발목이 잡혀 있고, 당장 한 끼의 식사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을 구성원들이 당산제를 치르고 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풍물의 신명에 빨려 들어가는 시간은 해소의 시간이자 위안의 시간이 된다. 〈당산제〉에서 풍물의 여흥을 즐기고 있는 마을 구성원들의 신명나는 모습은 쇠락해가는 마을과 대조적으로 생기를 발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소설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든 공동의 신명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공유하게 될 시간들이 삭막하지 않고 위안으로 남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37) 위의 논문, 120-122쪽.

38) 위의 논문, 127쪽.

이런 정황은 <고향사람들>에서도 그려진다. <고향사람들>은 희망 없는 고향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북해도 탄광행을 선택한 마을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한창 마을에서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먼 이국의 북해도행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고향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흉년을 겪은 마을에 도로가 뚫린다는 소문은 마을 청년들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해도 석탄광 인부 모집이 관주도로 행해지고, 마을 청년들은 면서기의 유혹에 넘어가 비극적인 북해도행을 결정하고 만다.³⁹⁾ 마을 청년들이 떠나기 전날 관주도로 송별 연회가 벌어지고 마을 청년들은 고향에서의 마지막 여흥을 즐긴다. 멀리 떠나는 동네 청년들에게 동리 사람이 특별히 생각하여 농악물(農樂物)을 가지고 가라며 한 벌 내어준다. 그 농악물로 청년들은 한바탕 풍물을 치며 이별의 시간을 맞이한다.

농악 소리는 자지러지게 울렸다. 어떤 사람들은 궁둥이를 그대로 붙이고 술을 권커니 갖거나 하기도 하고 서로 붙들고 사설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대개는 일어서서 입에 담뱃대 문 채 혹은 든 채로 춤을 너울너울 추었다. 농악 소리 웃음소리 말소리 어느 것이나 척척 어울렸다. [...]

장터 광고판 앞에서 모두 헤어지려 할 때,

“우리 성황당에 가서 한번 치고 갈리세. 자들 나만 따로오소들.”

하고 석만이가 맨 앞 서서 춤을 추며 가니, 모두 그 뒤를 대어 섰다. [...]

성황당은 동리에서 반 마장가량 떨어져 있는 행길가에 있다. 제법 높은 고갯길이라 동리 사람들은 여기 당도하기만 하면, 돌을 한 개씩 던져주는 일이 많다. 이날 밤만 새고 나면 그들은 화물자동차를 타고 성황당 앞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누구나 북해도에 가서 무사한 몸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황당에 당도하기 전부터 용솨음쳤다. [...]

“성황님네 그저 우리 집 식구들을 잘 좀 살게 하여주십시오. 식구가 각분 동서하는 판이니 이 년 후면 모두 성한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갈 걱정은 없게 하여주소서.”

<고향사람들>: 177-178

39) 당시 일본 북해도로 강제 연행된 청년들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연락도 못 하고 고향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이근영 소설에서처럼 북해도행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이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대개는 가족에게 연락조차 못 하고 거리에서 끌려가는 식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조선인을 이런 강제연행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쟁하의 일본의 노무사정은 악화되어 있었으며 전쟁이 확대되면서 1943년 이후부터 더욱 대대적인 징용이 있었다. 이때 징용된 이들 중 반수 이상이 3년간에 상실되었으며 만기 귀향한 자는 겨우 7.3%이고 35.6%가 도망자였다. 송건호, 『송건호전집 4 한국현대사 2』(한길사, 2002), 72-75쪽.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마을 청년들. 고국산천을 떠나기 전날 청년들이 치는 마지막 풍물의 모습은 비감하기까지 하다. 청년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농악 한바탕에 이어 청년들은 성황당 앞에서 가족과 더불어 자신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이때 청년들이 행하는 농악과 농악물의 의미는 상징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타국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농악물 한 벌을 내어준다는 것은 공간은 달라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임을 각인시키는 행위이다. 더불어 함께 풍물을 치며 신명을 느꼈던 그 공동체적 정서를 간직하게 하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비록 청년들이 타국에서 농악을 치지는 않더라도 농악물을 바라보며 마을에서 행했던 흥겨운 농악의 기억, 함께 했던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하며 지내게 될 것임이 예견되기도 한다.

이렇듯 이근영의 <당산제>와 <고향사람들>에서 풍물과 같은 공동체적 신명은 불안한 근대인들에게 위안을 준다. 불안한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공동의 신명 속에서 불안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개체로서의 인간은 특히 불안한 시기에 운명을 같이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이근영 소설은 보여준다.

IV. 개인과 전체 너머의 공유의 공동체

근대에 자본주의적 삶의 체제는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했다. 더불어 근대의 식민적 자본주의는 농촌의 궁핍화를 가속화시켰으며 농촌의 근간인 마을 공동체를 급속하게 와해시켰다. 자연적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의 와해는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정신적·물질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고향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근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실질적인 고향 공간을 상실하고 불안에 내맡겨진다. 그래서 하이데거(M. Heidegger)는 이 시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로 언명한다. 하이데거는 현대인들이 근대의 기술문명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고향을 잃고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진단한다.⁴⁰⁾ 볼노(O. F. Bollnow)도 하이데거와 유사한 의미에서 고향 상실을 진단한다. 현대에 와서는 신화적 인간에게 주어진 안정적인

거주의 공간은 상실되고 객관적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객관적인 체제에 고정되었던 현실도 뿌리 뽑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도 특별히 매여 있지 않게 되어 고향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망명자가 되었다고 한다.⁴¹⁾ 이렇듯 근대는 공동체가 붕괴되며 고향 상실의 시대가 됨과 동시에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 인간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인간은 한 개체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어디가에 소속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근대는 그런 자연적 공동체가 약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을은 있지만 이전의 견고하고 내밀한 마을 공동체가 아닌 근대 속 변모해가는 마을 공동체여서 사람들은 자신과 마을의 공동체적 유대를 확인받기 힘든 시기가 근대이다. 이전의 봉건적 마을 공동체가 견고한 위계화 속에서 자발성을 제한받는 공동체였던 것에 반해 근대의 공동체는 자발성이 증대된 열린 공동체의 모습을 띤다. 역사적으로 기존의 공동체는 동일성과 내재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만들어져왔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단일한 가치와 신념을 본질로 간주하며 그 동일성을 자신은 물론 구성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공동체를 지속시켜왔다. 그런 식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단일한 내재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 몸담음으로써 안정을 얻고 자신의 동일성과 고유성을 보장받으며 그 안에서 자신을 구현해나갔다.⁴²⁾ 또한 공동체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포획되지 않는 것을 배제하는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행사해왔다. 공동체가 내세운 동일성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여기에 대치되는 것은 가혹하게 배제해왔던 것이다.⁴³⁾ 이렇듯 공동체는 그 부정성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안정적 삶의 기반을 제공해주며 그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을 구현해나가는 역할을 해왔다.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인 경우로, 전통적 마을 공동체는 봉건체제 속에서 어느 정도는 견고한 동질성의 원리로 지속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그 안에서 만족을 피하고자 하는 자족성을 지니며 지속해왔다.

40) 이기상, 『존재와 시간』(살림출판사, 2006), 273쪽.

41)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저,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에코리브르, 2011), 163쪽.

42) 장 퓌앵 지, 박준상 역, 『무의 공동체』(인간사랑 2010), 23-37쪽.

43) 허정, 『공동성과 단독성』(산지니, 2015), 24쪽.

문제점은 근대에 이르러 이런 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을 구성원들의 존립이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근영 소설에서 마을 구성원들과 마을의 위기는 동시에 그려진다. 소설 속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같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극심한 가난으로 고향을 떠나 막연한 희망을 갖고 국경을 넘는 이들, 빚 때문에 정혼한 딸을 팔아 넘겨야 하는 무정하다고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 일본의 유혹에 넘어가 돌아올 수 없는 사지로 희망에 부풀어 돈 벌러 가는 마을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참담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마을 주민들. 이렇듯 이근영 소설에서 마을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궁핍으로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공동체와 개인의 운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설에서 개인의 위기는 곧 공동체 붕괴의 위기로 이어진다.

소설에서 한동안 풍족한 시간을 보냈던 마을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성은 절실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개인적·공동체적 위기에 직면한 소설 속 마을 구성원들은 공동체적 신념과 신명을 요구하며 공동체성을 발현하게 된다. 평온한 시기에 마을 구성원들은 기본적인 호혜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나간다. 필요한 경우에는 두레와 같은 노동의 공유로 힘을 더하고 또 공동의 신념이나 신명이 필요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심전심이 되어 공동체적 행위를 한다. 구성원들의 고통을 기꺼이 나누며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를 공동체 속에 열어놓는다. 실질적인 삶의 기반 속에서 형성된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며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마을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도 한다. 마을의 자치 규약이나 규범 등은 실질적인 삶을 경험하며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며 마을은 진화해온 것이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마을 구성원들은 마을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단수성⁴⁴⁾을 지닌 개체로 거듭나고 단수적 존재로서 타자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한다.

44) 낭시가 말하는 단수성은 동일화될 수 있거나 동일한 동일성들의, 원자들의 질서 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동일화될 수 없는 편위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탈자태와 관계가 있다. 단수성은 개인성이나 개체성을 가리키지 않고 다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자리 잡았다는 -'편위'되었다는-탈자태의 징표들이다. 즉, 낭시가 말하는 단수성은 나와 타인들이 어떤 창조적인 우리로서 관계 내에 자리 잡는다는 편위된 탈자태의 사건을, 따라서 공동의 우리를, 어떤 공동성을,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복수성을 함의한다. 장뤽 낭시 저, 박준상 역, 앞의 책, 269-274쪽.

낭시(J. L. Nancy)에 의하면 단수적 존재는 개인주의적인 나와 분리되면서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해 열어두는 존재이다.⁴⁵⁾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나와 타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강요나 강제는 없다. 공동체성이 요구될 때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행위를 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마을 공동체이다. 이근영 소설에서 그려지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근영 소설은 누군가의 의식적인 지향에 의해 발현되는 공동체성이나 공동체적 행위가 아닌 필요한 시기에 체현된 공동체성이 구성원들에게서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정황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황폐한 현실을 그려낸 그의 소설이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근영 소설에서처럼 당산제를 지내고 흥겨운 풍물 한바탕으로 여흥을 풀면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공동체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향수에 빠져 있는 현대인에게 그리운 그 무엇이다. 비록 이해관계는 있지만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공동의 안녕이 개인의 안녕임을 믿으며 살게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이다. 불안한 근대의 변화 속에서 의지처가 없었을 마을 주민들에게도, 도시로 떠난 이들에게까지도 한시나마 위무의 감정을 줄 수 있는 마을의 기억은 정신적 고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이근영 소설 속 마을 주민들이 행하는 당산제와 풍물굿, 동네 잔치는 마을 공동의 안녕을 빌면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이후의 험난한 시간들을 버티어 나갈 활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속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암담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이근영의 소설이 보여 주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실존은 본질적으로 2개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출발한다. 개체성과 사회성(공동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2개의 차원은 관계없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의존하며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는 유기체와 같다. 그렇기에 개체성과 공동체성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윤리적 연대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⁴⁶⁾ 이런 균형과 조화가 가능한 공동체의 가능성이

45) 위의 책, 271-272쪽.

46) 정용교 외, 「인간존재의 이중주: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이근영이 그려내는 마을 공동체에서 확인된다. 공동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의 복지와 완성을 추구하는 삶에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⁴⁷⁾이 있듯이 이근영 소설에서 구성원들은 자연적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안녕을 추구한다. 이렇듯 이근영 소설이 보여주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마을 공동체의 긍정성에 주목하면서 공동체의 향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의 신념과 유대로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사유하게 한다.⁴⁸⁾ 또한 마을 공동체가 이전의 동질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공동체 속에서 자발성과 자족성을 지니며 지속되어온 것을 보여주며 현대의 공동체가 지향할 점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로 익명적 관계, 역할에 따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자치, 자족성 등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전통적 공동체는 때때로 매력적이지만 그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익숙해진 다매락적 삶과 개인주의는 전면적 공동체의 단일매락적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⁴⁹⁾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현대의 공동체는 변화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변모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근영 소설에서 마을 공동체의 면모가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과 달라지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요구가 달라진 것은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 위계 속에서 제한적 자발성과 자족성을 지니고 있던 공동체가 근대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 삶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미세하게나마 이전의 마을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가는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정황은 새로운 공동체성이 요구되는 탈근대에 지향해야 할 공동체(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17집 1호(2009), 207-208쪽.

47) 위의 논문, 188쪽.

48) 공종구는 해방 이전의 이근영 농민소설에서 보여주는 농민들의 건강한 공동체적 정서나 온후한 심성에 대한 작가 이근영의 믿음이 시대의 어두움을 가르거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전혀 무력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그러한 윤리적 미덕이나 자질이야말로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시대의 어두움을 가르거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폭발적인 힘으로 전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근영 농민소설이 보여준 공동체적 정서의 가치를 고평하고 있다. 공종구, 앞의 논문(1996), 470쪽.

49) 정성훈,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한계와 현대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공동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2호(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147-148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이근영 저, 유임하 역, 『이근영 중·단편 선집』. 현대문학, 2009.

2. 단행본

송건호, 『송건호전집 4 한국현대사 2』. 한길사, 2002, 72-75쪽.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248쪽.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저,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63쪽.

이기상, 『존재와 시간』. 살림출판사, 2006, 273쪽.

장 퓌 낭시 저, 박준상 역, 『무의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23-37쪽.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민간신앙』.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3쪽.

한철야 외, 『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 인동, 1990, 200쪽.

허정, 『공통성과 단독성』. 산지니, 2015, 24쪽.

3. 논문

공종구, 「이근영 농민소설의 이야기 구조 분석: 「당산제」. 『한국언어문학』 제37권, 1996, 470쪽.

_____, 「이근영 농민소설의 이야기 구조 분석: 「농우」, 「고향사람들」. 『국어국문학』 제119호, 1997, 392-393쪽.

김기홍, 「모듬살이의 진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5권 1호, 2015, 142-143쪽.

김수진 외,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권 4호, 2010, 25쪽.

류양선, 「1930년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계몽적 인간형」. 『국제고려학회논문지』 제1호, 1999, 279-280쪽.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3호, 2013, 454쪽.

엄숙희, 「윤홍길의 장마에 나타난 민간신앙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7권, 2014, 188쪽.

유임하, 「고쳐하는 양심과 농촌 공동체의 윤리: 이근영 소설의 현재성」. 『돈암어문학』 제22집, 2009, 152쪽.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9집, 2005, 163쪽.

이윤갑,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마을문화의 해체」. 『한국학논집』 제32집, 2005,

250-251쪽.

이해준,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 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 제32집, 2005, 213-214쪽.

임재해, 「공동체 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 『실천민속학 연구』 제11호, 2008, 131-132쪽.

전명수, 「현대적 불안의식과 종교의 역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종교연구』 41집, 2005, 43-44쪽.

전지훈 외,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2016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6, 133-134쪽.

정성훈,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한계와 현대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공동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정용교 외, 「인간존재의 이중주: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7집 1호, 2009, 196-200쪽.

국 문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이근영의 소설에서 불안한 근대인들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발현하는 양상을 고찰해봄으로써 근대인들에게 공동체와 공동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데 있다. 근대 초기는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단자화된 삶으로의 본격적인 이행기였다. 농촌의 마을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이근영의 소설에는 근대 공간에 피투된 존재들의 불안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가려는 구성원들의 기투 양상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이근영의 소설은 오랫동안 유대로 묶여 있던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정황이 씩씩하게 그려지는 한편, 위기에 처한 민중들의 공동체적 행위들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점이 주목된다. 소설에서 극한에 처한 근대인들은 마을의 당산제나 풍물과 같은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는다. 근대인들은 공동의 신념과 신명을 경험하며 불안한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불안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근영 소설은 개체로서의 인간은 특히 불안한 시기에 운명을 같이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근영 소설이 보여주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마을 공동체의 긍정성에 주목하면서 공동체의 향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의 신념과 유대로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사유하게 한다.

투고일 2016. 12. 19.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이근영(Lee Keun Young), 불안(Anxiety), 공동체(Community), 공동체성(Communality), 마을 공동체(Village Community), 공동의 신념(Common Belief), 공동의 신명(Common Shinmyoung)

Abstracts

A Study on the Lee Keun Young's Peasant Novel written in Pre-Liber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Anxieties of Modern People and the Communality

Eom, Suk-hu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communality to the modern people by examining the aspect of the unstable modern people expressing the communality around the village community in Lee Keun Young's novel.

The early modern period was a full-fledged transition period from a community life to a fragmented life. In Lee Keun Young's novel based on the village community of rural villages, the anxieties of those who have been thrown being in the modern space and the project aspects of the members who are trying to lead life in the anxieties are vividly drawn.

It is noteworthy that Lee Keun Young's novel is bitterly describing the community that have been in a strong bond for a long time is being broken down, while the community's actions in crisis is impressively describing. The modern people who are in the limit solve the anxiety and comfort by the communal action such as the village ritual and pungmul in the novel. Modern people experience the common beliefs and common shinmyoung and feel the power to overcome the anxiety by feeling that they are not alone in an uneasy life. In the meantime, Lee Keun Young's novel shows that human beings as an individual are living with feelings of relief as a member of a community sharing many things, especially in an uneasy period.

In this way, Lee Keun Young's novel shows that the village community makes the modern people who are in the nostalgia of the community to think about the value of the village community that is based on a common belief and a common life.